

순천시 재활용도움센터, 전남도내 첫 시범 운영



순천시는 재활용품 선별·회수율을 높이고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 및 교육을 위해 5일부터 전남도에서 처음으로 재활용도움센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재활용도움센터는 생활에서 다량

투명페트병·캔·종이팩·건전지 등 자원회수 위한 인센티브 제공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재활용 문화 확산 역할 기대”

발생되는 투명페트병, 캔 등을 모아 배출 시 현금 포인트, 종량제 봉투 등 다양한 인센티브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순환자원 회수로봇 2대, 종이팩 및 건전지 수거 보상사업, 주방·세탁 세제 리필샵 등을 운영한다.

순환자원 회수로봇은 투명페트병과 캔을 투입하면 자동으로 선별·압축하고 보관했다가 가득 찰 경우 사물인 터넷을 통해 곧바로 관리 업체에 최종 수거 처리되며, 개당 10원이 지급되어

2,000원 이상 적립하면 개인 계좌로 송금이 가능하다.

종이팩 및 건전지 수거 보상사업은 종이팩은 1kg 이상, 건전지는 0.5kg 이상 배출 시 무게를 측정하여 종량제 봉투(20리터) 또는 화장지(1롤)로 교환해주고, 1회용 용기 재사용을 위해 빈 용기를 가져오면 주방·세탁세제 등으로 담아 갈 수 있도록 리필샵도 별도로 운영한다.

순천시 재활용도움센터는 농협 과

머스마켓 건물 도로변 매장에 위치해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청소자원과 박상훈 과장은 “재활용 도움센터가 향후 생활 속 재활용 문화 확산 및 교육을 위한 거점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함께 누리는 일상의 평화’ 2021 순천 한중일 평화포럼 개최

순천시가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 국제영상관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2021 순천 한중일 평화포럼’을 개최한다.

지난 2019년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2021 순천 한중일 평화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긴 터널을 벗어나고,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는 ‘함께 누리는 일상의 평화’를 주제로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미래세대 물려줄 새로운 평화의 길을 논의하는 장(場)이다.

이번 포럼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하도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심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순천대 박기영 교수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8일 공식행사의 첫날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김형석 前통일부 차관, 하도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각각 동북아 평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 생태평화 구축을 위한 미래행동이라는 주제로 발제 및 토론시간을 가진다.

9일 둘째 날은 순천 정유재단과 교도 조선인 귀무덤의 역사에 대한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심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아시아 시대 고등교육분야의 협력에 대한 발제, 정유재단 후손 지자체 단체장을 초청하여 한중도시 간담회 개최로 지속가능한 평화에 대해서 논의한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2021 순천 한중일 평화 포럼은 과거의 안보·통일·역사의 평화를 넘어, 기후 변화 및 새로운 팬데믹 등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의 공존과 번영, 그리고 일상에서의 평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2022년에는 세계 생태경제 이슈를 주도하는 ‘다보스 포럼’과 같은 ‘세계평화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 온라인으로 참관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8일과 9일에 줌(zoom)어플에서 회의 ID(844 0284 0261)를 입력하여 실시간으로 참여 가능하다.

순천=김승호기자

‘보성을 담다’ 농특산물 꾸러미 인기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 ‘보성물’ 추석명절 선물전 대박

보성군은 공식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보성물’에서 8월 23일부터 1개월간 추진한 ‘추석명절 선물전’ 행사에서 1만 3천여상품, 2억 5천만 원의 매출액을 올려 지난 추석 명절 대비 141%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성을 담다’꾸러미 선물세트 3천 5백만 원, 잡곡세트 9천 7백만 원, 녹차미인보성쌀, 각종 수산물 세트가 매출액 증대에 기여하였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할인행사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추석 선물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비대면 온라인 홍보·판촉을 더욱 강화하고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로 더 아름다운 여수밤바다가 온다

여수시·관광공사,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여수시는 지난 5일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마트관광도시란 관광과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도시다.

지난해 12월 전라남도도가 코리아 토털 관광 패키지(KTTP)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핵심사업인 스마트관광도시를 맡은 여수시는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서비스별 세부계획과 구축단계별 이행방안 등의 수립을 마치고 10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총 70억 원(국비 35, 도비 7, 시비 28)의 사업비를 들여 스마트관광 5대 요소인 스마트경험, 스마트편의, 스마트서비

스,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 통합플랫폼을 내년 5월까지 구현한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통합플랫폼에서 교통·음식·숙박·관광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함께 예약·결제 서비스, 한·영·중 다국어서비스, AI기반 여행경로 추천 등을 받아 편리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짐 배송과 보관, 유모차·반려동물·휠체어 정보, 공영 자전거(여수량) 위치 등 필요한 정보도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한 ‘밤바다와 디지털이 만나 반딧불이 경험하는 밤.디.불 여수여행’을 주제로 이순신광장부터 낭만포차에 이르는 종포해양공원 1.5km에 ‘미디 어 월, 드론라이트쇼, 인터랙티브 버스킹, 메타버스’ 등을 설치해 색다른 스마트 경험을 제공한다.

여수=오상호기자

광양시, ‘성황·중마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선정

광양시는 환경부에서 공모한 ‘2022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성황·중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56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2022~2023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실시한다.

‘성황·중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야생생물 서식지를 복원해 도시지역 생물 다양성과 생태적 탄력성을 증진하고, 미세먼지 등 도시오염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성황·중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2022년 실시계획을 거쳐 2023년 생태숲과 생물서식처가 복원되고 생태체험공간이 조성되며, 성황근린공원 조성공사와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도시속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심종섭기자

고흥군, 제3회 출산친화 가족사진·UCC 공모전

고흥군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출산친화 가족사진·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는 올해 3회차로 아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저출산 인식개선과 지역 내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행복한 우리가족이 있어 소중한 순간’이라는 주제로 ▶결혼·출산·육아 등 출산장려 공감대 형성 모습 ▶형제·자매, 다자녀가정, 3대가족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의 모습 ▶초보아빠, 중년가정의 육아 참여 모습 등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담긴 자유로운 장면을 주제로 촬영하여 사진 또는 UCC로 제출하면 된다.

관심 있는 고흥군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방법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sosereu@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작에 대한 심사는 주제관련성, 작품성, 독창성, 가족수 등 4개 기준으로 진행되며 육아 및 사진 관련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총 12건의 우수작을 11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금으로는 으뜸가족상 2건(각 50만원), 화목가족상 4건(각 30만원), 다정가족상 6건(각 20만원)과 응모자 전원에게는 1만원의 고흥사랑 상품권이 수여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지친 일상을 가족과 함께 극복하며 재충전의 기회가 되고 건강한 가족문화가 조성 될 수 있도록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간격거리를 두어 주세요!